

‘문화 간 다시 쓰기’ 로서의 번역에 관한 소고

김혜경*

목 차

1. 들어가며
2. 문화 수용과 번역에 대한 인식 변화
3. 문화 번역을 위한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해석학
 - 1) 해석학에 관한 철학적 담론들
 - 2) 텍스트 해석학에서 언어적 환대로서의 번역으로
4. ‘문화 간 다시 쓰기’로서의 번역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최근 번역학계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문화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형이상학적 담론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번역론이 해석학의 전통으로부터 넘겨받은 시대적 의미와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타문화를 가장 이상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번역방법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하겠다. 이에 2장에서는 번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문화번역의 화두를 던졌던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타문화 수용방식에서의 변화를 조명하였다. 3장에서는 리피르의 텍스트 해석학적 사유와 번역론을 함께 연결시켜 문화번역 관점에서의 적용방법을 고민했다. 4장에서는 고전적 번역이론이 문화번역 이론으로 이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번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본고의 관점과 함께 향후 번역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키워드: 문화번역, 텍스트 해석학, 타문화 수용방식, 언어적 환대로서의 번역, 문화적 환대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국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

1. 들어가며

본고는 학제로서의 번역학 관점에서 ‘좋은 번역’으로 가는 구체적인 번역방법론을 찾기 위한 철학적 성찰이다. 즉 번역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번역자는 과연 무엇을 번역해낼 것인지 그 본질적인 문제들을 사유해보는 과정이라 하겠다. 학제적 소통과 융합의 시대에 번역학이 기타 학문분과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번역학’이라는 독립범주 안에서 해당 데이터들이 갖는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본고가 시도하는 번역학 내적 차원에서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메타적 담론이 소환되는 이유다. 관찰 가능한 대상을 기술하는 경험과학으로서가 아닌 그 범주 밖에서 번역학이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방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다양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번역학계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문화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형이상학적 담론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장기적 목표를 향한 우선과제로 현재 번역론이 해석학의 전통으로부터 넘겨받은 시대적 의미와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타문화를 가장 이상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번역방법론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해석학(hermeneutics)’은 문헌과 인간 정신의 소산(所産)이 갖는 의미를 찾아 고대로부터 신학, 철학, 문학의 영역에서 ‘해석’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해온 학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해석학의 문제가 ‘주석’의 범위 안에서 제기되었다고 보는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코어((Paul Ricoeur)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는 주석이 해석학, 곧 해석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본문을 읽어내는 작업이 늘 어떤 공동체나 전통 또는 당시의 사상이 이루는 전체와 요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폴 리코어/해석의 갈등, 양명수 역, 2019, 29). 리코어는 고대부터 존재해온 주석 방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어떤 점에서 철학과 관련이 있는지에 천착했고¹⁾ 주석에는 기호 이론과 의미

1) 성서해석학의 문제로부터 이미 철학에서 말하기 전에 종교전통에서는 해석이 중요한

이론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일 본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들어 있고 영적인 의미도 들어 있다면, 단순 논리에 따라 본문을 흘뜻의 기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해석 작업에는 어떤 깊은 의도가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것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낯선 본문과 친해지려는 의도이고, 본문의 의미를 지금 상황에서 이해해보려는 의도이다(폴 리코르/양명수 역, 2019, 30).

본고가 ‘번역’을 ‘해석학’과 연결시키고자 했던 출발점이 되어준 기본 사유가 바로 이 한 단락에 응축되어 있다. 만일 주석 작업을 단일 언어 내의 번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론을 서로 다른 언어 간 번역의 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함으로써 번역 작업의 시련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문자)와 사유(정신) 간 존재하는 복잡다단한 관계로 인해 번역학 차원에서는 그동안 번역해내야 하는 것이 단어인지 의미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해당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특정 상황 혹은 맥락이라고 본다면 그 맥락조차도 말해지지 않은 내포적 의미가 숨어있는 빈 공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번역자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번역의 본질에 입각한 근본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작과 번역의 관계, 혹은 저자와 텍스트 그리고 독자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번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원작의 요소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번역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해석학이 문헌에 접근하는 방식은 현재적 번역방법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이에 해석학이 그동안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실존론적 해석학으로부터 리코르(Paul Ricoeur)의 텍스트 해석학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담론 속에서 어떤 방향

주제로 연구되었다.

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흐름을 훑아봄으로써 번역학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리코르(Paul Ricoeur)가 제안한 번역론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함께 새로운 번역 방법론에의 적용가능성을 찾아볼 것이다.

특히 리코르가 제안하는 ‘언어적 환대로서의 번역’이 과연 현재 문화번역 담론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독자는 텍스트 해석을 통해 정체성이 획득된다는 리코르의 관점은 최초 독자인 번역자의 주체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원저자성(原著者性)에 가려졌던 번역자의 역할에 모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고는 리코르가 텍스트 읽기를 자기이해의 과정으로 보는 ‘독자의 주체성’ 담론을 문화적 환대, 더 나아가 언어적 환대와 연관해서 번역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에 이어질 2장에서는 번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볼 것인데, 특히 문화번역의 화두를 던졌던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3장에서 해석학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리코르의 텍스트 해석학적 사유와 번역론을 함께 연결시켜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고전적 번역이론이 문화번역 이론으로 이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번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본고의 관점과 함께 향후 번역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번역학이 독립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저자의 의도를 저자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존의 모더니즘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번역자에게 좀 더 자유로운 주체적 공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화 수용과 번역에 대한 인식 변화

번역은 단순한 기호나 문자적 대응 차원을 넘어 이제 텍스트의 시대정신과 직결되는 문화 코드의 전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서두에서 인용한 리퀴르의 말처럼 문헌의 주석을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이러한 고민은 있었다. 고전적인 번역 논쟁인 직역과 의역이라는 이항구도가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새로운 이론들에 의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주장처럼 과거에는 분명 특정 시기 특수한 목적 하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번역이었다.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번역의 역사가 현재에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쩔 수 없이 강요되고 행해졌던 번역의도와 번역행태 등을 반성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번역이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번역에 대한 인식 변화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향후 번역학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일단 번역을 ‘문화 간 다시 쓰기’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는 호미 바바(Homi K. Bhabha)가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는 제 3의 영역으로서의 번역에 걸맞게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번역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담론 안에서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정의를 꼽자면 과연 무엇일까?

출발언어 메시지에 가장 가깝고 자연스러운 등가를 도착언어로 재생산하는 것, 이것이 번역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정의일 것이다. 이때 우선적 고려대상은 의미이고 그 다음이 문체의 관점이라고들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베르만(Antoin Berman)의 ‘문자역’에 대한 긍정적 접근, 즉 ‘문자(lettre)’에 대한 작업으로서의 번역은 그래서 실험적이라 할 수 있다.²⁾ 다시 되돌아가 위에서 언급한 정의는 출발언어의 이국성이 도착언어가

2) 베르만은 “저자를 강조하는 번역의 지향 자체가 타자와의 어떤 관계를 텍스트 차원에서 열어가게 하는 것이자 낯선 것을 들여오는 매개 작업을 통해 자국적인 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앙트완 베르만,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독일 낭만주의 문화

갖는 자국성의 폐쇄성을 허물고 그것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학번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정의에는 ‘역동적 등가’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나이다&태버(1969)는 번역본이 마치 원본처럼 느껴져 메시지 수신자가 출발어문화의 수신자와 최대한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을 역동적 등가라고 했다. 언어학적 관점을 통사 분석과 더불어 텍스트 번역에 최초로 도입한 나이다의 발상은 현대 번역학의 초석이 되었다. 이는 출발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통해 메시지의 의도 전부가 파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가 완벽하게 등가를 이루는 번역이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리콤폴트 역시 두 언어 간 차이는 극복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가 『번역론』에서 드러낸 등가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 번 번역불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한다. 그에게 있어 번역은 의미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는 등가, 즉 어떤 추정적인 등가(équivalence présumé)만을 지향할 뿐이다.³⁾ 이처럼 번역에 있어 서로 다른 문화의 자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태생적 차이를 안은 두 언어 간의 거리는 좁처럼 좁히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러한 번역불가능성을 딛고 최적의 번역이론을 찾기 위해 언어학과 같은 인접학문과의 접목과 응용은 필수였다.

현대 번역학은 그 필요에 의해 언어학이라는 학문분과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왔다. 독립된 기호체계로서의 언어연구를 강조했던 현대 언어학이 점차 인간의 뇌를 그 연구 중심에 포함시키면서 인지언어학이 나타났다. 이러한 학문적 지평 속에서 문맥이 발화된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화용론이 발전하면서 텍스트언어학이 번역학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번역을 텍스트언어학과 접목시킨 대표적인 번역학자가 바로 노이베르트(Neubert)와 쉬레베(Shreve)이다. 텍스트에는 고유의 텍스트성(Textuality)⁴⁾

와 번역』, 윤성우 이항 옮김(2009), 17쪽 참조).

3) 폴 리콤폴트/윤성우·이항 옮김, 2006, 143쪽:9~11.

4) 텍스트성은 쓰여져 있는 문헌이 가지는 외형적 성질을 가리킨다.

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 이들은 번역자는 원문과 번역문 간 텍스트성의 차이를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가독성 있고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적 측면에서 진행된 번역학 연구는 원문과 번역문의 등가를 전제로 하였다.

반면,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던 번역학에서는 두 텍스트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완전히 다른 두 문화 간 매개자로서의 번역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가 완벽한 번역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만약 이 환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나이다&태버(1969)의 번역 등가에 대한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도착어문화권의 독자가 가장 편안하게 번역물을 읽을 수 있는 번역은 분명 이상적이고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번역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서구의 역사기술 과정을 전복하거나 그것의 실체에서 생략된 기타 지역·인종·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인 탈식민주의는 과거에 이루어진 번역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강요되어 왔다는 데 주목한다. 탈식민주의는 피지배 국가들의 식민 경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담론을 생산한다. 동시에 식민 이후 독립 국가들의 문화생산에 따른 세부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다른 언어로 구현된 두 문화 사이의 차이를 번역 기제를 통해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며 억압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식민지 지식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지배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받던 시기에 이루어진 번역행위와 그로 인한 번역물은 그래서 억압적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과거의 번역론이 현대로 오면서 나타나는 번역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서구 유럽국가가 다른 주변 국가들을 타자화하는 기제로 사용한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담론 역시 논쟁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탈식민주의적 입장에서 번역을 바라보는 이들은 두 언어문화의 차이와 타자성을 의식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지배

자의 위치에 있던 서구 유럽국가로부터 소외되었던 다양한 목소리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번역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있다. 언어라는 기호체계의 전환으로 이해되던 협의의 정의에서 이제는 번역의 범주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재 정의되고 있다. 하야카와 아쓰코(2013)는 타자를 재발견하는 번역의 역할은 역사학의 지평에서도 동일하게 수행된다고 했다. 유럽 중심주의가 강조한 단일한 역사는 다시 읽기, 다시 쓰기를 통해 해체되는데 이 또한 번역이라고 하였다. 즉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과거의 역사가 번역을 통해 다시 읽히고, 다시 쓰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망을 획득한다는 의미다. 번역이 역사 바로 알기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번역의 본질이 단일한 역사를 회의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과거를 새롭게 갱신하는 행위와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탈식민주의 이론을 장착한 번역론은 유럽 중심의 역사를 언어적으로 다시 읽고 새롭게 다시 쓰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번역의 기능 역시 그 초점이 달라졌다. 베누티(2006)는 번역의 기능은 외국텍스트가 자국의 것으로 동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번역은 본질적으로 자민족중심적인 작업이라고 하였다.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혼종의 언어 공간이 전제가 되는 번역은 필연적으로 문화 간 힘겨루기라는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 미묘한 혼종의 공간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논의되는 번역론은 그동안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착되어버린 타자와 주체 둘 다를 해체하고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번역은 이처럼 언어치환의 차원이 아닌 언어라는 매개체의 개입을 통해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더 높은 차원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⁵⁾.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번역론이라는 그 담론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인식에 도달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번역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5) 하야카와 아쓰코(2013)의 “번역이란 무엇인가” 참조.

데 아주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번역이 역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는 다시 쓰기 과정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은 더 이상 단순한 기호의 치환, 즉 바꿔 쓰기가 아닌 엄연한 다시 쓰기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번역학계에서 문화번역이 점차 주목을 받으면서 번역학자들 사이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언어 고유의 다양한 개념과 가치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번역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가 바로 문화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바로 이러한 인식 하에서 해석학적 번역이론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문제는 결국 번역과 텍스트의 학문적 논의로 귀결된다⁶⁾. 이러한 인식이 해석학이 새롭게 번역자의 관점에서 번역수행의 이론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해석학이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로부터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가다머(Hans Georg Gadamer)로 이어지는 철학적 담론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번역학과의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3. 문화 번역을 위한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해석학

1) 해석학에 관한 철학적 담론들

주지하다시피 ‘해석학(hermeneutics)’이라는 단어는 ‘해석하다(to interpret)’

6) 해석학적 사고는 사물의 분석이 아닌 인간의 사고나 직관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언표는 조작화하거나 표준화할 수 없을뿐더러 명확하지도 않으며, 그 내용은 다만 직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학적 번역이론에서는 번역자의 언어적 창조성이 가장 중시되고 텍스트에 대한 그 자신의 올바른 이해와 성찰이 요구된다. 이 경우 역어텍스트가 중시되고 번역과정이란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에 맞추어 원어텍스트에 좀 더 접근하도록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일컫는다(Stolze 192; 김효중(2004)에서 인용).

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동사 ‘헤르메네웨인(hermēneuein)’과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 ‘헤르메네이아(Hermēneia)’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⁷⁾. 이 두 단어 모두 헤르메스(Hermes) 신과 연관된다. 그리스적 유래를 보면 해석학은 메시지 전달의 과정, 즉 이해에 이르는 매개적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석학은 ‘이해’라는 큰 주제 아래 수렴된다. 그리고 번역은 이해에 이르는 기본적 해석 과정의 특수 형식이다. 번역을 통해 우리는 언어 자체가 세계에 대한 다리를 이어주는 해석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리처드 팔머/이한우 역 2017, 61-62). 특히 헤르메네웨인의 ‘번역하다’라는 세 번째 의미로부터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번역은 단순히 모국어에서 도착 언어에 상응하는 동의어를 찾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두 세계를 매개하는 해석 과정이라는 점이다. 해석의 과제는 의미상의 거리감으로 인해 낮설고 불명확하던 것을 친숙하고 명료한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토대가 되는 ‘이해’는 인식론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존재론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번역의 본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번역에 대한 근본 물음에서 ‘이해’를 ‘앎’이 아닌 ‘존재’의 형태로 간주하는 하이데거의 ‘이해의 존재론’으로부터 다양한 철학적 해석학 담론이 현재적 ‘번역방법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인간의 모든 전통과 역사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하이데거에게 ‘이해⁸⁾’는 어떤 존재론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존재의 문제로서 실존에서 존재물음으로 가고 그 존재물음에 귀속된 상태에서 이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의 해석학을 실존론적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이데거는 ‘눈앞에 있음’이라는 인식론적 시간의 관점을 달리하여 어떤 특정 장소와

7)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말하다(to say)’, ‘설명하다(to explain)’, ‘번역하다(to translate)’이다(리처드 팔머/이한우 역 2017, 37-38 참조).

8) 우리가 이해를 기초적 실존범주로 해석할 경우, 그로써 제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을 현존재의 근본양태로 개념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다(마르틴 하이데거/이기상 역, 2020, 198:14-16).

시간에 실존하는 ‘보는 주체’의 존재론적 기반에 주목하였다. 즉 우리는 자신의 실존에 근거해서만 사태를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보는 주체에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주체가 사태를 보는 것은 바로 자기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인식 앞에서 나타나는 현전의 존재만을 고찰하던 철학적 풍토에서 하이데거는 인식론적 시간성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처럼 해석이 ‘자기이해’라는 관점은 하이데거 이전에도 있었다.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는 해석은 삶의 표현이며 자기이해의 문제는 언제나 이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자연과학의 객관주의에 근거한 근대철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삶의 인식론이라 할 수 있는 ‘정신과학’의 정초로서의 해석학을 발전시켰다.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은 결국 주관적인 해석자 관점의 영향권 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해석학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인간의 체험은 삶에 대한 체험이고 그 삶은 언제나 자기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는 그의 ‘생철학적’ 사유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는 역사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기이해로서 객관주의로는 결코 거기에 가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태란 체험으로서의 삶을 그 삶 자체에 의해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딜타이는 이처럼 ‘해석’을 지속적으로 고정된 삶의 표현들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로 정의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의 정신적 삶을 완전하고 창조적이며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하기에 창작물 속에 포함된 현존의 나머지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⁹⁾ 이 지점에서 그의 사유는 하이데거와 만난다. 삶의 이해는 주관적인 주체의 자기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존재의 문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했던 것이다. 문제는 삶의 체험으로서의 자기이해가 딜타이

9)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이란 오늘날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포함하여 인간의 내면적 삶의 표현들을 해석하는 제반 분야를 말하는 것이다(리처드 팔머/이한우 역 2017, 165:10~14).

10) 빌헬름 딜타이, 『체험·표현·이해』, 이한우 역(책세상, 2002), 59:9~15 참조.

에게는 여전히 인식론적인 체험과 표현 개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데거는 이해의 문제를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보았다는 데 차이가 있다.

현존재는 이해로서 자신의 존재를 가능성들로 기획투사한다. ……
 이해의 기획투사는 스스로를 형성할 수 있는 고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의 이러한 형성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이른다. 해석에서 이해는 자신이 이해한 것을 이해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해석에서 이해는 어떤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자체가 된다. 해석은 실존론적으로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해가 해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해석은 이해된 것을 알게 됨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에서 기획투사된 가능성들을 정리작업함이다(마르틴 하이데거/이기상 역, 2020, 206:1~10).

우리의 존재방식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한 변화 속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우리가 ‘사태를 본다는 것’은 (눈앞의) 현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존재에 귀속된 상태로 그것을 존재론적 기반 위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봄’은 언제나 과거의 영향 아래 재해석을 통해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이해에 대한 통찰을 가리키는 선이해(preunderstanding)의 개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이해란 한마디로 ‘명시적 해석을 위한 기초가 되는 해석’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현존재의 이해는 각각의 실존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의 선이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모든 명시적 해석의 주제 범위도 바로 이 선이해에 의해 한계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이데거는 선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으로서(~as)’ 구조를 말하는데, 우리가 사물을 바라봄에는 그 자체 안에 근원적으로 해석의 ‘으로서(~as)’라는 앞선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¹¹⁾ 다시 말해서 모든 해석에서 하이데거는 독자의 이해 안에 ‘해석학적 ‘~으로서’인 선구조(prestructure)’ 개념을 상징한 것이다. 모든 인식은 다 해석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미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선이해’의 토대 위에서

11) 마르틴 하이데거/이기상 역, 2020, 209:19.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은 바로 번역을 하기 위해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번역자가 최초 독자로서 텍스트 해석에 들어갈 때 결국 자신의 선이해라는 토대 위해서 이해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이것은 기존의 저자를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그의 의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야말로 번역자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유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독일 현대 해석학의 대표적 철학자인 가다머(Hans Georg Gadamer)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해석학의 선이해 개념을 받아들여 철학적 해석학으로 발전시킨다. 가다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해석학적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변증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의미가 해석학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곧 그 의미라는 것이 전적으로 해석학적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부터 텍스트의 의미 혹은 정체성이 해석학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기할 것은 텍스트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해석자의 정체성도 역시 변한다는 것이다. 즉 해석 과정에서 해석자는 텍스트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가다머에 따르면 이처럼 인간은 오직 해석학적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속한 토대를 통해서만 사태를 이해한다. 그는 『진리와 방법』에서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 해석학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이해’라고 보았다. 그 이해는 과거와 현재의 지평융합이며 바로 그 지평융합 속에서 과거와 현재는 서로 관계 맺으며 우리의 선입견들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그에 따르면 이해는 객관과 대립하는 주체의 주관적 과정 이전에 인간의 존재 방식 그 자체이다.

해석학은 가다머와 하이데거 이 두 철학자에게는 공히 인간의 존재론적 과정으로서의 ‘이해’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이해’라는 현상 자체를 밝히고자 하는 철학적 노력이었다. 하이데거는 진리와 이해에 무게중심을 두는 바람에 방법론으로서의 설명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가다머 역시도 이해와 설명, 즉 진리와 방법의 변증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하이데거를 따라서 진리와 이해 쪽으로 방향을 잡는 존재론적 해석학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리콤폴트의 해석학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이해 개념만으로는 해석학적 문제 전체 다를 아우를 수 없다는 비판적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해석의 갈등』에서 하이데거가 보지 못한 ‘방법’의 문제를 가져와서 그것을 수정한다. 즉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의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이제 본고는 ‘자기이해’를 근본 주제로 삼고 있는 리콤폴트의 텍스트 해석학적 입장과 함께 번역론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성찰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텍스트 해석학’에서 ‘언어적 환대로서의 번역’으로

텍스트 상에 구현된 언어는 그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의미연관을 통해서만 해석된다. 텍스트를 통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번역에서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두 텍스트 간 등가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번역에 대한 고전적인 이분법적 번역논쟁은 어느 쪽이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명쾌하게 제시해주길 요구한다. 하지만 어떤 번역방법론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 이전에 번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무엇을 번역해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다. 원천중심론과 목표중심론 이 둘은 결코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의 문제일 수 없기에 이 두 방법론을 함께 적용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번역은 두 가지 방법론이 최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철학적 해석학 담론에서 번역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해석학 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해석의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의미 그 이상을 담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해석학이 다루는 것은 텍스트 이해에 대한 물음 뿐만 아니라 이해 자체에 대한 근본 물음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본고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해 그 자체에 대한 물음이다. 단순한 텍스트 이해의 차원

을 넘어서 이해라는 현상 자체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인문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학문분과와의 연계 속에서 해석학이 갖는 의의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았다. 번역학이라는 메타 담론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에 관한 형이상학적 담론을 찾는 과정에서 번역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해석학이었던 것이다. 그 해석학의 기본 사유는 우리가 번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이해’라는 개념을 인식론이 아닌 존재론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텍스트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다양화할 수 있었다. 리쾨르가 언어의 문제를 고려해 에움길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실존론적 해석학을 확장시킨 텍스트 해석학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는 그의 텍스트 해석학의 근본 주제인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번역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에 리쾨르의 해석학에 대한 사유로부터 번역론과의 접점을 위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가 생각하는 번역불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언어적 환대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종합의 철학자로 불리는 리쾨르는 가다머와 더불어 현대 해석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리쾨르는 하이데거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기존의 반성철학과 현상학을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철학과 연결시킨다. 그의 해석학이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 개념은 ‘자기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자기이해는 기호, 상징, 텍스트라는 매개물을 거쳐 성립된다. 리쾨르는 ‘우회로’라고도 부르는 ‘에움길’을 돌아 모든 철학을 포섭하고 다시 해석자의 실존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취한다. 즉 실존으로 시작해서 전통으로 들어가 거기서 비판적 반성을 통하여 모든 해석을 아우르면서 자기이해로 돌아오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동원한 철학적 방법은 구조주의로부터 정신분석학, 현상학, 악의 상징을 해석하기 위한 신화분석, 종교현상학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해석의 갈등』의 각 장에서 차례대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리쾨르에게 있어서 자기이해란 곧 텍스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독자가 텍스트의 세계에 자신을 맡기고서 텍스트 읽기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리콰르는 자신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외부에 있는 텍스트나 언어적인 것, 즉 타자적인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 직접적인 자기이해는 결국 가짜이며 텍스트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자기이해는 없다. 그의 해석학을 텍스트 해석학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다.

해석할 때는 항상 본문이 속한 시대와 해석자 자신의 시대 사이의 문화 차이 또는 거리를 없애고자 한다. 그 거리를 극복하고 본문과 같은 시대에 서면서 해석자는 본문의 뜻을 손에 쥔다. 낯선 것을 만만하게 만들어, 자기 것으로 삼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자기이해가 확장되는 셈이다. 모든 해석학은 분명하게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남의 이해를 거친 자기이해다(폴 리콰르/양명수 역, 2019. 44:13~18).

19세기 낭만주의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로서 해석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한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에게 있어 해석학의 과제는 저자만큼, 저자보다 더 잘 저자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딜타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즉 자기와는 다른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같은 인간으로서 공통된 인간 본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쉐라이어마허는 우리 모두가 보편적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해석 방법을 통해 저자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리콰르는 여기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텍스트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는 일치될 수 없고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로부터 독립했으므로 저자와 독자는 직접적으로 관계 맺을 수 없다고 하였다. 리콰르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 독자의 주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고대로부터 모든 전통의 텍스트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문자의 문제가 있었다,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이해는 언제나 비판적 반성과 함께 가야 한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직시한 리콰르가 『해석의 갈등』에서 취한 철학적 방법은 이해-설명-이해의 변증법적 과정이다. 리콰르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언어 문제에 천

착하여 다양한 설명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언어철학적 사유로부터 구조주의적 기표기의 분석, 문장의 의미론으로부터 신화적 상징을 해석하기 위한 다의어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분석 방법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전체를 다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실존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해의 과정인 것이다. 리콰르에게 텍스트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서 텍스트 해석 자체가 자기이해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텍스트 해석학적 사유와 언어문제에 대한 그의 폭넓은 관심은 소통의 차원을 넘어 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로 이어진다.

출발어 중심과 도착어 중심의 양 극단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 사이 어디쯤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번역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그 방법론의 가능성을 리콰르는 타자와 자기로서의 주체라는 존재론적 범주로부터 사유를 확장함으로써 찾고자 했다. 인류언어학적인 논의에서 거론되는 번역불가능성에 대해서 리콰르는 번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번역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번역가능성의 입장을 함께 언급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번역이 가능한 것은 서로 다른 언어들의 기저에 숨겨진 구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숨겨진 구조들은 사라져버린 원초적 언어의 흔적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며, 혹은 선형적 코드, 보편적 혹은 초월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재구성해내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폴 리콰르/윤성우·이향 옮김, 2006, 103:10~17).

리콰르는 이렇게 번역불가능성과 번역가능성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주면서 번역작업을 프로이트(Sigmund Freud) 적 의미의 회상의 작업을 넘어선 애도의 작업으로 설명한다. 즉 번역 작업은 이국적인 것에 대한 공포와 증오로부터 오는 내적 저항을 물리치고 이루어진 회상의 작업인 동시에 완벽한 번역이라는 이상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애도의 작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¹²⁾. 참된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Jacques

12) 폴 리콰르/윤성우·이향 역, 2006, 118:1~6 참조.

Derrida)의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의 말처럼 완전히 고정된 의미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에 해석이란 무한히 연기되며 지속되는 기호의 운동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특기할 것은 어떤 언어든 분산과 혼돈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번역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폴 리콰르/윤성우·이향 역, 2006, 109:1~3). 그 많은 시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각 언어들이 기능하고 있고 또 수많은 텍스트들이 계속해서 번역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콰르는 “번역가는 어떻게 (작업)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리고 언어들이 복수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언어들 간의 번역이 원칙적이면서도 일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난관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사변적 반론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론 모색적인 (번역)하기를 통해서라고 답한다¹³⁾. 이 지점은 언어의 확산성을 강조하며 번역에 관한 폭넓은 담론을 풀어놓는 조지 스타이너(George Steiner)의 해석학적 사유와도 맥을 같이 한다. 위에서 리콰르가 언급한 번역가가 수행하는 작업의 현실은 번역학에 대한 메타 담론의 필요성을 각인시킨다. 번역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명료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원문과 번역문의 의미상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담화 상에서의 대화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미론적 유추가 가능한 맥락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번역이 그렇게 무모하고 불확실하지만은 않은 작업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텍스트 속에 내재하는 의미화의 체계를 분석하고 그 의미 간의 추정적 등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콰르가 말한 좋은 번역이란 동일성 없는 등가성일 뿐이라는 함의일 것이다. 우리는 등가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작업하고 등가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리콰르가 말하는 번역의 본질은 바로 자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이 하나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두 언어 사이를

13) 폴 리콰르/윤성우·이향 역, 2006, 139:13~18.

끊임없이 왕래하는 그 행위 자체인 것이다(폴 리콥르/윤성우·이향 역, 2006, 88:12~15 참조). 이는 멈출 수 없는 번역에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이국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결코 극복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번역이 시작된다는 역설인 것이다. 리콥르는 완전한 합치와 등가 간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희망을 버리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면서 언어적 환대를 이야기한다. 즉 이국의 언어를 모국어라는 자신의 집에 맞아들임으로써 타자의 언어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폴 리콥르/윤성우·이향 역, 2006, 89:10~13), 그것이 바로 리콥르가 제안하는 언어적 환대로서의 번역인 것이다. 텍스트의 세계는 저자의 지평으로부터 독립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독자에게 열려있다. 이는 황수영(2009)에 따르면 텍스트와의 거리두기로부터 획득한 생산적 기능일 수도 있다. 그는 텍스트 이해 단계에서는 거리두기와 전유(appropriation)의 변증법이 출현하는데, 여기서 전유한다는 의미는 낯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¹⁴⁾. 황수영은 거리두기와 전유의 변증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모든 시공간적 거리를 문화적인 낯섦으로 바꾸어 버리는 타자성과 모든 이해를 자기이해로 확장시키는 자기성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의 원리이다¹⁵⁾.” 리콥르의 이 한 문장으로 그의 텍스트 해석학이 갖는 기본적인 사유의 방향을 명쾌하게 읽을 수 있다. 거기로부터 언어적 환대로서의 번역론이 탄생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 간 다시 쓰기’로서의 번역

유대계 비평가이자 철학자인 조지 스타이너는 자신의 저서 『바벨 이후』

14) 황수영, 「소통의 이론과 그 철학적 기반-리콥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3호(2009), 84쪽:5~8 참조, .

15) 폴 리콥르 『해석이론』 83쪽/황수영(2009) 『개념과 소통』 제 3호, 84쪽:7~12에서 재인용.

1장에서 “이해가 곧 번역이다¹⁶⁾”라는 선언과도 같은 제목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인간이 다양한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Steiner 1998, p. 91)¹⁷⁾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타이너는 언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인간의 의식 속에서는 끊임없이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윤성우(2008)의 표현처럼 스타이너는 확실히 언어로 쓰인 모든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넘어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번역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¹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한 번역의 문제는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에 최적화되는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번역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적막에 가까울 것이라던 스타이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본고는 해석학의 담론 속에서 해석이 삶의 표현임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의 핵심 개념인 ‘이해’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텍스트 해석을 자기이해의 과정으로 보는 리콤폴르의 해석학이 특별한 이유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 독자의 주체성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최초 독자인 번역자가 텍스트 읽기를 통해 주체성을 획득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체적 글쓰기로서 번역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리콤폴르는 텍스트 해석학에만 머물지 않고 그 외연을 번역론으로 확장시키고 번역불가능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언어적 환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고는 이제 리콤폴르의 자기이해의 개념을 번역에 접목시켜 번역을 ‘문화 간 다시 쓰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시 쓰기’라는 표현으로부

16) “理解即翻譯(이해가 곧 번역이다)”, [美] 喬治·斯坦納 著, 孟醒 譯 『巴別塔之后: 語言與翻譯面面觀』, 浙江大學出版社, 2020, 1쪽.

17) 윤성우, 「조지 스타이너(G. Steiner)번역론과 해석학에 관한 소고」, 『통역과 번역』, 2008/제10권 2호, 2008, 70:16~17 재인용.

18) 세계는 끝나지 않는 경계를 가진 지평(地浬)인데 자연언어들의 각각은 한 지도와 다른 지도 사이의 “소통(communication)”(Steiner, 1998, p. 81)이 바로 번역인 것이다. 지도들이 서로 다른 영역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소통은 바로 언어간적 번역이며, 한 지도 내에서 오래 전에 그려진 부분과 최근에 그려진 지도 사이에 독법(讀法)이나 이해가 문제될 때도 여전히 소통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를 언어내적 번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윤성우, 「조지 스타이너(G. Steiner)번역론과 해석학에 관한 소고」, 『통역과 번역』, 2008/제10권 2호, 70:25~71:2).

터 우리는 직관적으로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 있다. 즉 번역자에게 자유로운 글쓰기 공간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문화 간 주체적 다시 쓰기는 타문화로부터 오는 낯선 것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자국어의 특성을 타언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확장된 번역자의 두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어적 환대이며 그 과정에서 번역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나은 번역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초기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한 번역의 대원칙은 유창성(fluency)이었다. 유창성이 중시되었다는 것은 수용자중심의 번역인 의역을 선호했음을 의미한다. 즉 가독성이 높은 번역을 통해 도착어문화권의 독자들이 원작의 느낌 그대로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번역학계에서는 직역과 의역의 구분 자체가 그 기준 설정에서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직역은 충실성, 의역은 가독성이라고 믿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번역은 베누티(Lawrence Venuti)의 말처럼 본질적으로 자문화중심적인 행위이므로 가독성은 직역과 의역 모두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출발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에 집중하면서도 번역자는 늘 가독성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고전적인 번역이론이 문화번역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은 이제 타문화를 탈은폐시키는 과정을 통해 독자가 자연스럽게 문화적 타자와 조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탈식민주의 관점에서는 번역을 통해 획득하고 상실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문화 간의 거리를 환기시키고 차이와 타자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의 번역시장에서는 원작으로 보이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창하게 읽히는 번역물이 좋은 번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베누티(1995)에서는 자국문화 우월주의, 즉 영어권의 문화패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문화적 혁신이라는 목적 하에 이국화를 제안하였다. 출발텍스트에 과도하게 충실한 편향성을 비판한 것이다. 베누티는 이국화 전략은 목표텍스트 문화권 내에서

독자들에게 문화적 담론의 변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번역의 유창성이 출발텍스트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가 번역과정에서 목표텍스트 문화에 동화되거나 제거되는 것만을 함의하는 것일까? 번역의 역사를 돌아보면 번역이라는 행위는 확실히 지배문화 혹은 패권문화에 편향되게 이루어져왔다. 특기할 것은 과거 한국의 경우 그 편향성은 양방향성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출발텍스트의 이국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향과 목표텍스트에서 외국문화의 낯선 요소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한국에 동화시키는 변안의 경우가 그것이다. 변안을 진정한 번역의 범주로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외국 작품 번역의 초기단계에서는 익숙한 현상이었다. 영어권 국가에서 유행하던 유창성이 자문화 우월주의라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현상을 또 다른 자문화 편향성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김선영(2014)은 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 개념은 각각 출발문화중심과 도착문화중심 기준으로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다고 하였다. 충실성과 가독성 기준에 자국문화와 지배문화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배문화가 자문화인지 타문화인지에 따라 충실성과 가독성의 적용기준도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김선영(2014)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자국문화가 지배문화로 군림하는 서구의 번역에서는 출발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은 종종 등한시되기도 하지만 번역어의 가독성은 철저하게 요구된다. 이 경우 서구의 가독성 기준은 철저한 자국문화중심, 즉 도착문화중심 번역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비서구의 번역에서는 출발텍스트에 대한 충실성과 가독성이 함께 추구되는데, 이때 가독성은 충실성 개념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원저자를 내세우고 번역가를 은폐하는 출발문화중심, 즉 지배문화중심 번역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문화가 지향하는 번역의 기준은 물론이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국문화와 지배문화의 권력 관계에 따라 상대적이고 편향적으로 설정된다. (김선영 2014).

결국 비서구권 국가인 한국에서 이루어진 번역은 출발텍스트에 대한 충실

성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작품을 번역할 경우, 과거 한국의 번역자들은 출발텍스트의 원저자를 내세우고 번역자를 철저히 은폐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출발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에 과도하게 함몰된 번역사대주의라고 비판받는 지점이다.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과 환상이 번역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했다는 얘기다. 변종의 문화 편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문화가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번역자의 인식 속에 자문화가 아닌 타문화 편향으로 번역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분명 한국의 번역 역사에는 양방향의 문화 편향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새롭게 포착되는 현상은 문화특정어와 같은 요소는 목표텍스트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힘입어 도착어문화권 독자에게 편안하게 읽히는 가독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문화소 번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이국화 전략을 도입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지금 번역학계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 코드의 전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번역하기는 이상에 불과할지라도 더 좋은 번역으로의 지향은 여전히 실험적인 문화번역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번역자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유창성이 돋보이는 번역 전략을 취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국적 요소를 가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번역본이다. 이 작품의 번역자가 선택한 전략은 참고할 만하다. 서구 독자들에게 원작이 유창하게 읽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단문으로 번역하는 전략은 미시적으로는 자국화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주변 문학에 대한 이국화 전략이라고 하였다(조숙희 2015). 즉 유창성이라는 도착어문화권 독자에 집중하는 번역전략에서도 출발언어 문화권의 낯선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은 분명 또 다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숙희(2015)는 서구 독자들에게는 분명 낯선 엄마의 기억 중 음식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서구 독자들을 원

작에 데리고 간 번역방식이라고 하였다. 서구 독자들은 [Please Look After Mom]을 읽으면서 외국문화에 노출되어 번역소설을 읽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서구문화에 대한 압박으로 이 작품이 번역소설임을 서구 독자들은 인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엄마를 부탁해]에서 보여준 시도가 리콰르가 말한 언어적 환대로서의 번역일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결국 두 문화 사이에서 번역자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다시 쓰기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고가 앞에서 정의한 ‘문화 간 다시 쓰기’는 타문화에 대한 환대가 언어적 환대로 이어진 결과물이며 자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의 합의과정에서 번역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개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탄생한 제 2의 창작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번역학이 지향하는 문화번역의 미래는 자유로운 번역자의 주체적인 ‘문화 간 다시 쓰기’로서의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5. 나가며

고전적인 이분법적 번역논쟁의 중심에 있던 직역과 의역이라는 화두는 현대 번역론의 인식 변화를 거치면서 점차 새로운 번역방법론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이론과 접목되어 여러 형태로 논의되었지만 직역과 의역은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두 번역방법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번역학의 궁극적 지향점을 찾기 위한 형이상학적 담론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현재 번역방법론이 해석학의 전통으로부터 넘겨받은 시대적 의미와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았다. 철학적 해석학의 발전 과정을 통해 텍스트는 독자가 처한 상황에 의해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리콰르는 텍스트 해석학의 외연을 번

역론으로 확장시키고 번역학의 영원한 난제인 번역불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언어적 환대를 제안하였다. 리콰르는 텍스트 읽기에 대한 관점을 통해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저자가 확정해놓은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독자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텍스트의 빈 공간을 독자가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는 사유로부터 본고는 그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 고전했던 번역자에게 자유로운 글쓰기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바로 ‘문화 간 다시 쓰기로서의 번역’이다. 번역이란 제 2의 창작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화 간 다시 쓰기로서 번역자가 자유롭게 그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어적 환대로부터 나온 번역자의 판단과 개입이다. 이것은 기존의 저자만을 중시하던 모더니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리콰르의 ‘독자 주체성에 바탕을 둔 언어적 환대로서의 번역’이라는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것이 바로 번역자에게 좀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해석 공간이 주어진다면 번역학은 명실상부한 독립적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원천인 것이다.

參考文獻

- 김선영, 「일방적 문화 편향성을 넘어 상생의 미학으로-베누티와 베르만의 이국화 번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 64집, 한국비교문학회, 2014.
- 김효중, 「해석학적 번역이론가 텍스트 기능」, 『번역학연구』 제 5권 1호, 한국번역학회, 2004.
- 윤성우, 「언어, 번역 그리고 정체성: 베르만, 베누티, 그리고 들뢰즈의 번역론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제 13권 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0.
- 윤성우, 「조지 스타이너(G. Steiner)번역론과 해석학에 관한 소고」, 『통역과 번역』, 제10권 2호, 2008.
- 이미경,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르망의 관점으로」, 『번역학연구』, 제 10권 2호, 한국번역학회, 2009.
- 이상원,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1, 2011.
- 이향, 「해석이론의 특징과 한계」, 『번역학연구』 제 10권 1호, 한국번역학회, 2009.
- 전현주, 「번역과 담론」, 『번역학연구』 제 13권 1호, 한국번역학회, 2012.
- 조숙희, 「베누티의 이국화로 본 김지영의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 : 문화특정어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8권 3호, 2015.
- 황수영, 「소통의 이론과 그 철학적 기반-리콰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 3호, 2009.
- 리차드 팔머, 이한우 옮김,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17.
-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옮김, 『존재와 시간』, 까치글방, 2020.
-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1983.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언어일반과 인간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 베누티, 로렌스, 임호경 옮김, 『번역의 윤리 -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서울: 열린 책들, 2006.
- 빌헬름 딜타이, 이한우 옮김, 『체험, 표현, 이해』, 책세상, 2002.
- 앙트완 베르만, 윤성우·이향 옮김,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독일 낭만주의 문화와 번역』, 철학과 현실사, 2009.
- 정혜용, 『번역논쟁』, 서울: 열린 책들, 2012.
- 폴 리콕르,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2006.
- 폴 리콕르, 양명수 옮김, 『해석의 갈등』, 한길사, 2012.
- 프리드리히 니체, 홍성광 옮김, 『도덕의 계보학』, 연암서가, 2020.
- 하야카와 아쓰코, 김성환·하시모토 지호 옮김, 『번역이란 무엇인가: 번역이 만든 새로운 문학과 사상』, 현암사, 2017.
-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이길우 옮김, 『진리와 방법 1』, 문학동네, 2012.
-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 2』, 문학동네, 2012.
- [美]乔治·斯坦纳 著, 孟醒 译 『巴别塔之后: 语言与翻译面面观』, 浙江大学出版社, 2020.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as a rewriting between the culture

Kim, Hye Kyung

According to the change of attitude in modern translation theory, a traditional dichotomy of translation, literal translation and liberal translation, has been changed and gradually replaced by new translation strategi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two types of translation (i.e. literal translation and liberal translation) have an identical goal “good translation”, despite the fact that each of them has been discussed in different way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two translation strategies that are called foreignization and domestication are examined in this study. Among others foreignization and domestication are most acceptable and applicable to the modern translation theory.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se two strategies and proposes a new approach to them. Then, it also discusses the important role of a translator as a reproducer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translating is re-producing of the original under a guideline. This paper identifies periodical implications and universal values of a current translation methodology that were inherited from traditional hermeneutics. As a way of producing “good translation”, Paul Ricoeur (French philosopher) expanded the scope of text hermeneutics into translation, and proposed the notion of ‘linguistic hospitality’. It is an attempt to tackle the issue of untranslatable texts, which is one of the main subjects in translation studies. The process of adap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native language for another language is similar to offering a hospitality of a different culture. Through the process, the understanding of two different cultures is broaden and when linguistic hospitality is added to this, the better quality of translation is finally obtained, albeit not a perfect one. This paper shows that it is crucial for a translator to harmonize the two strategies, foreignization and domestication in translating; translation made with harmony between the two makes readers experience both unfamiliarity and familiarity in different cultures and finally provides them with a fertile imagination.

As a rewriting between the two different cultures, a translator meets a text and then creates a new product, a translated work. It can be the most ideal translation for a translator to harmonize unique characteristics of a source language with those of a target language.

Key words : good translation, linguistic hospitality, rewriting between the two different cultures

투 고 일 : 2021. 10. 10. / 심 사 일 : 2021. 10. 15. ~ 2021. 11. 15. / 게재확정일 : 2021. 11. 20.

